

다니엘서 - 제24번

니므롯,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Jeff Pippenger

2023-12-19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린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10-13.

성경적 "첫 언급의 법칙"은 어떤 것의 끝은 그 시작으로 드러난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니엘서 첫 세 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책으로 볼 때, 그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진리가 바로 이 첫 세 장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시작은 마지막에 봉함이 풀릴 진리를 대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측면에서, 봉함이 풀리는 진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의 영원한 복음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교회들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이며, 요한계시록 1장에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때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때와 반드시 동일한 때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때가 가까웠다' 할 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마지막 기별은 둘째 천사와 한밤중 외침의 늦은비 기별이다. 그것은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와 연결된 진리이다. 그것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의 계시이며, 이 모든 귀한 계시들을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의복으로 함께 엮어 주는 금실은 레위기 26장의 '귀한' '일곱 때'이다. 다니엘서 1장, 그리고 다시 말해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기별이다. 다니엘서 2장의 '비밀'도 역시 그 기별이다.

다니엘서 1장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대표하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 안에 세 천사의 모든 메시지의 예언적 이정표가 담겨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메시지의 모든 예언적 이정표가 다니엘서 1장에도 담겨 있다. 그 요소들은 세 단계의 시험 과정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먼저 식이 시험이 나타나고, 그 뒤를 시각적 시험이 잇고, 이어서 시금석 시험으로 이어진다. 1장은 2장과 3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식이 시험을, 2장은

시각적 시험을, 3장은 시금석 시험을 대표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메시지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 단계 시험 과정에 대해 네 가지 증언을 제공한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매우 심오한 예언적 역사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 두 장이 만들어 내는 그 전개에는 적어도 여섯 개의 뚜렷한 예언적 흐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언적 흐름들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723년에 시작하여 일요일법령에 이를 때까지 이어진다. 여섯 흐름 중 또 하나는 1798년에서 일요일법령에 이르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흐름 안에는 동시에 세 가지 예언의 흐름이 표현된다. 곧 땅의 짐승(미국)의 흐름, 개신교의 뿔의 흐름, 그리고 공화주의의 뿔의 흐름이다. 이 셋은 함께 미국에 관한 예언적 흐름의 시작에서 다섯 번째 흐름을 확립한다. 그 흐름은 1798년에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표시한다. 미국에 관한 예언적 흐름의 끝에서는 여섯 번째 흐름이 발생하며, 그것은 1989년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표시한다.

다니엘서 4장으로 나타나는 땅의 짐승의 예언적 흐름의 시작은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표시되며, 그 예언적 흐름의 끝도 또한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표시된다. 7장, 8장, 9장의 봉인이 풀림으로 대표되는 역사 기간의 시작과 끝 역시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표시된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봉인이 풀림으로 대표되는 역사 기간의 시작과 끝도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표시된다.

1798년에 "끝의 때"에 다니엘 7장, 8장, 9장의 봉함이 풀리면서 시작된 역사적 기간의 끝은 1863년이였다. "끝의 때"에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의 봉함이 풀리면서 시작된 역사적 기간의 시작은 1989년이였다. 1863년부터 1989년까지는 126년에 해당한다. 126년은 1,260년의 십분의 일, 곧 십일조이다. 따라서 126이라는 수는 1,260년을 상징하고, 그 1,260년은 "광야"를 나타내며, 이 "광야"는 다시 "일곱 때"의 2,520년을 상징한다.

이 사실은 땅의 짐승의 역사에서, 초기의 첫째 천사의 운동과 말기의 셋째 천사의 운동이 모두 그 시작과 끝에서 "일곱 때"로 표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 두 운동을 서로 묶어 주는 사이의 기간 역시 "일곱 때"로 상징된다.

'line upon line'이라는 성경적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종류의 계시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 방법론이 없으면 봉인된 책을 신학에 교육받은 사람에게 건네고, 그 봉인된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견해에 대한 자만심은 그로 하여금 그것이 봉인되어 있으니 봉인된 책은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봉인된 책을 그 계몽된 자에게 통제되고 거세된 양떼 가운데 한 사람에게 건네면, 신학자가 우화로 차린 요리를 먹는 데 안주하게 된 그 양떼는 봉인된 책을 적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신학적 산헤드린의 구성원들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임명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멈추어 놀라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라. 그들은 포도주 때문에 취한 것이 아니건만 취하였고,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건만 비틀거린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부으시고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라; 곧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곧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학식 있는 자에게 주며 말하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여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배우지 못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향한 그들의 경외함은 사람의 규례로 가르침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명철이 감추어지리라. 그들의 계략을 여호와에게서 깊이 숨기려 하며, 그들의 일이 어둠 속에 있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참으로 너희의 거꾸로 뒤집어 놓음이 토기장의 진흙처럼 여김을 받으리니,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는 명철이 없었다" 하겠느냐?'

이 모든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바르게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참된 의도를 숨기고, 거짓을 사랑하고 만들어 내는 타락한 천사와 교제를 지속한다. 원수는 부분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 준다. 어떤 이들은 만연한 어둠에 물들어 가며, 진리를 제쳐두고 오류를 택하고 있다. 예언이 가리킨 날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 땅의 역사의 이 시점에 많은 이들이 술 취한 자들처럼 행동한다. '너희는 멈추어 놀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도 취하였고, 독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도 비틀거린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부어 너희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선지자들과 너희의 통치자들, 선견자들을 그가 가리우셨다.' 자신들이 높여질 백성이라 여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취함이 임해 있다. 그들의 종교적 신앙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다. 그 영향 아래 그들은 똑바로 걷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로를 굽게 만든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주께서 그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과학적 책략가들이다. 그리고 영적인 시력이 맑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고 마땅히 도왔어야 했던 이들조차 스스로 속아 악한 일을 뒷받침하고 있다.

말세의 전개는 곧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러한 심령술적 기만이 그 본모습, 곧 악령의 은밀한 역사임이 드러날 때,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규례로 배운 바 되었으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리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주로부터 그들의 계책을 깊이 숨기려 하고, 어두운 데서 그들의 일을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진실로 너희의 뒤바꿈이 토기장의 진흙 같이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그에게 명철이 없었다' 하겠느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도 바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왔고 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내게 보여진다. 큰 빛과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지도자들은 주께 크게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신을 원수의 대열에 세웠다. 세상은 그럴듯한 궤변으로 범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궤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할 터인데, 그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증거를 거짓으로 바꾸어 온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본래 장차 회계해야 할 자로서 영혼들을 살피는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있어야 했다. 그들은 전투의 무기를 내려놓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아무 효력 없게 만들고 그의 경고와 책망을 제쳐놓으며, 분명히 사탄의 편에 서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영적 취함이 이제 독한 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비틀거리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임했다. 범죄와 비리, 사기, 기만, 불공정한 행위가 하늘 궁정에서 반역한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사탄의 교활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거짓을 사랑하고 만들어 내는 자와 연합할 것이다. 나는 우리 백성에게 경고한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Battle Creek Letters, 123-125.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다니엘서 1장은 땅의 짐승의 초기 역사와 상응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모든 기별을 대표하는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은 미국의 종말기와 상응한다. 느부갓네살은 첫째 천사의 역사와 다니엘서 1장을 대표한다. 벨사살은 셋째 천사의 역사와 다니엘서 1~3장을 대표한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에게는, 그 첫 통치자에게 예표적으로 그러하였듯이, 하늘의 감찰자의 선고가 임하였다: '오 왕이여, ... 네게 이 말씀이 이르렀나니; 나라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다니엘 4:31." Prophets and Kings, 533.

다음 글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증인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표징에 압도된 벨사살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일들과 그분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큰 기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많은 빛이 주어졌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벨사살은 그의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사회에서 쫓겨나 들의 짐승들과 함께 지냈던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교훈이 되었어야 할 이러한 사실들을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였고, 할아버지의 죄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그 범죄들을 감히 저질렀다. 그가 정죄된 것은, 그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갈고땀기만 했더라면 옳게 행할 수 있었을 기회와 능력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36.